

화순군, 코로나 한시적 '농어민수당 60만 원 추가' 지급

오늘부터 전남도 수당과 추가 수당 '일괄 지급'... 가구당 총 120만 원

구충곤 군수 "농어촌 공익적 기능 유지, 코로나 극복에 도움" 기대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자체 예산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한시적 농어민 공익수당'을 농어가당 60만 원씩 추가 지급한다.

이에 따라 자격을 갖춘 화순 농어가는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60만 원)에 화순군 코로나19 위기 극복 한시적 농어민 공익수당(이하 화순군 한시적 농어민수당) 60만 원을 더해 총 120만 원을 받게 됐다.

화순군은 이달 8일부터 30일까지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과 화순군 한시적 농어민수당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순군은 농어가당 연 60만 원(도비 40%·시군비 60%)씩 지급하는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과 별개로 올해 한시적(1회)으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소비·판로

위축, 인건비 상승으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농어민의 경영안정을 꾀하기 위해 추가 수당 예산 54억 원(군비 100%)을 마련했다.

군은 지난달 31일 농어민 공익수당 심의위원회를 열고 화순군 한시적 농어민수당 지원 계획, 지급 대상자 8572명을 확정했다.

총 지급액은 102억8440만 원이고, 전액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화순군 한시적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는 올해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대상자와 같다. 이에 따라 추가 수당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지급 대상 여부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지급 기간(6. 8. ~ 6. 30.)에 주소지 읍·면 관할 지역농협, 농협화순군지부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후 수당을 받으면 된다.

화순군은 지난해 3월 정부 4차 재난지원금과 연계해 지역의 전체 농어가에 '화순군 농어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정부의 농어민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에 자체 예산을 마련, 모든 농어가에 10만 원씩 총 8억6270만 원을 지원했다.

이번 화순군 한시적 농어민수당 추가 지원도 같은 맥락이다.

구충곤 군수는 "추가 수당이 농어가가 코로나19 파고를 넘는데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농어민수당의 국가정책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순=주용현 기자

여수시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추가 접수

여수시가 오는 15일까지 2022년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추가 접수를 받는다.

지난 1월과 2월 행복바우처 신청 기간 내에 개인사정 등으로 신청을 못한 여성 농어민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이다.

신청 대상자는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거주한 자로 여수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과 어업에 종사한 여성 농어업인이다.

20세 이상 75세 이하로 1947. 1. 1~2002. 12. 31. 출생자에 한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여성 농어업인은 6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4월 20일부터 여성농어업인 4,671명에게 20만원 상당의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 완료했다.

이번 추가 신청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격 확인 후 8월 중 농협시지부와 지역농협을 통해 발급할 계획이다.

/여수=조일상 기자

나주 주말 전통체험 '향교와 놀자'

11일 전통차 예절·놀이 체험 등 프로그램 풍성

호남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나주향교에서 주말 다양한 체험행사가 펼쳐진다.

나주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주말 전통 체험 프로그램인 '향교랑 놀자'를 11일 나주향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재청이 후원하는 '2022년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전통 예절과 문화, 다양한 놀이 체험 등을 제공한다.

6월 프로그램은 나주향교 동의랑에서 전통 차 예절과 시을 방법 등을 배우는 '다례 체험'이 오는 12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총 3회 진행된다.

참여 신청은 선착순으로 나주향교 굽은소나무학교 공식 SNS밴

드에서 '구글 폼'을 작성해 사전 제출하면 된다.

참가비는 5000원이며, 5가족씩 나눠 오후 1시 30분, 2시 30분, 3시 30분에 각각 시작한다.

다례체험 외에도 향교 내부에 선식빵피자 등을 만들 수 있는 주전부리코너(참가비 1000원)와 전래놀이, 이야기 할머니, 향교해설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다례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전통 예절에 대해 배우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향교 굽은소나무학교는 나주시 역사관광과가 주최하고, 위탁자인 동신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운영을 맡고 있다.

/나주=조성준 기자

곡성 장미축제장 농특산물판매장 2억6000만원 성과

곡성멜론·토란파이 등 농산물·가공식품 매진 행렬



곡성군이 제12회 곡성세계장미축제에서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해 2억 6000만 원의 매출 실적을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6일까지 17일간 곡성군은 3년 만에 장미축제를 개최했다. 축제장인 기차마을 내에서는 생산 농가와 소비자가 직접 만날 수 있는 농특산물 판매장이 운영됐다. 지역 농가(단체) 18개소가 참여했으며 총 131개의 다양한 농특산물과 가공품들을 선보였다.

방문객들은 첫 출몰을 시작한 명품 곡성멜론에서부터 삼기 햇흑찰옥수수 등 계절 농산물에 큰 관심을 보였다.

또한 곡성군 대표 농산물을 농가들이 직접 가공한 흑찰옥수수빵, 토란 부각, 토란 파이, 백세미 컵 누룽지, 토란 앙금떡, 멜론 앙금떡 등도 행사 기간 내내 매진 행렬을 기록했다. 그 결과 전체 참여 농가 합산 약 2억 6000만 원의 높은 판매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곡성=이상석 기자

이번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에 있어 곡성군은 품질 관리에 심혈을 기울였다. 참여 신청 단계부터 높은 품질 관리 조건을 제시해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인 것이다.

곡성군은 친환경 및 GAP 인증을 받고, 곡성군 우수 농산물을 직접 생산 및 가공하는 농업인(단체) 중 각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농가(단체)에 참여 기회를 부여했다.

또한 지식·가공식품 판매 관련된 위생 인증을 필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곡성군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우수 농특산물로 판매 품목을 구성했다. 또한 판매 효과 극대화를 위해 백세미 및 곡성멜론 홍보관을 구성하고, 우체국 무료 택배관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다.

이번 농특산물 판매장 행사에 이어 곡성군은 2022년 6월 21일부터 30일까지 신세계백화점 광주점에서 상생협력 직거래장터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알리고, 백화점 방문객에게 판매함으로써 곡성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곡성=이상석 기자

담양 폭염 대비 노인 안전대책 수립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강화·건강관리 교육 등 실시

담양군이 올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대비 특별대책을 마련해 9월 30일까지 폭염에 취약한 독거노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군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1,863명과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955명에게 폭염대비 행동요령 및 건강관리 교육을 통해 안전을 확인한다.

또한 무더위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폭염 취약계층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야외활동 자제를 적극 홍보하고, 비상 시 응급상황에

따른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 읍면사무소, 금융기관 등 350개소 무더위 쉼터 운영으로 폭염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취약계층 건강관리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기후 변화에 따른 온도 상승으로 폭염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들에 대한 보호가 절실하다"며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폭염대책을 추진해 무더위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조승태 기자

광양 진월공공하수처리장, 안정적 방류수 수질기준 확보 노력

총질소(T-N) 방류수 수질기준 낮추기 위한 공정개선 지속 추진

광양시는 2021년 하반기부터 진월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를 보다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수처리 공정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을 제시한 기술진단을 이행하는 것으로 진단결과 최근 1년간(2020년 6월~2021년 5월)의 검사항목별 유입수질은 안정적이나 총질소(T-N) 항목이 설계수질(29.7mg/l)을 106.6% 초과해 유입됐고, 설계수질을 초과하는 횟수가 연간 171일로 나타났다.

특히, 심전강류계소(상·하행)서 유입되는 일일하수는 약 200톤으로 전체 유입량의 17%를 차지하나 총질소(T-N)는 4배 이상 초과했고 명절, 휴가철, 대체휴일, 연휴 등 휴게소 이용객 증가 시 심전강류계소 유량조정조 시설 일 400톤 확충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시는 그동안 수처리 공정 중 총질소를 줄이기 위해 ▲생물반응조 유원(메탄올) 정량펌프 신설 ▲생물반응조 공기조절밸브(수동→자동)

교체 ▲생물반응조 내부반송 슬러지 펌프 용량을 증대했다.

또한 반송슬러지 이송배관 교체(중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심전강류계소의 용량 증설과 관련해 ㈜두성유통과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와 업무협의를 할 방침이다.

김진호 하수처리과장은 "공공수역의 물 환기를 보전하기 위해 진월공공하수처리장의 안정적인 방류수 수질기준을 유지하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광양=조순익 기자

순천시 문화재 활용사업 추진

6~11월 다양한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운영

순천시는 6월부터 11월까지 관내 문화유산 곳곳에서 2022년 문화재 활용사업을 추진한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이번 사업은 순천시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재청과 전라남도의 후원으로 ▲생생 문화재 활용사업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문화재 야행사업으로 운영된다. 각각의 사업들은 특성에 맞는 문화유산 속에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생생 문화재 활용사업은 '선교사와 함께하는 근대문화유산 나들이'라는 주제로 일제강점기 암흑기에 희망의 불빛을 비추고자 순천을 찾아왔던 선교사들의 온기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매산동 일원에서 진행된다. 해설사와 함께 매산동 일원 문화유산과 기독교사박물관을 답사하고, 과거 선교사가 되어 그 시대를 경험해볼 기회도 가질 수 있다. 또한 과거 여행 속에서 잠깐의 음악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프레스틴 음악회도 개최 예정이다.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은 대한

민국 삼보사찰 중 하나인 천년고찰 송광사에서 '조계산 천년산문을 열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스님과 함께 송광사 곳곳을 누비며 경내에 있는 수많은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고, 법정스님이 걸었던 무소유길을 걸으며 일상에 지친 심신에 잠시나마 휴식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묵어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준비돼 있으며, 산사 안에서 울려 퍼지는 이색적인 음악회도 개최된다.

올해로 9회를 맞이한 문화재 야행 사업은 '순천인물열전'이라는 주제로 야경(경관) 야로(탐방), 야사(체험), 야화(전시), 야설(공연), 야시(공방)의 6(야)를 테마로 한 해설투어·체험·전시·공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으로 우리들의 과거와 뿌리를 탐색하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 대표 축제 중 하나로 2020년과 2021년 문화재청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문화재 야행사업은 더욱더 다채롭고 풍요로운 볼거리로 8월 중 만나 볼 수 있다. **/순천=조순익 기자**

광양 여름 맞아 시민 글귀 공모

오는 24일까지 구글폼으로 접수

광양시는 여름을 맞아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시민 글귀 공모를 오는 24일까지 구글폼으로 접수한다.

이번 공모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교역도시 광양에 대해 홍보하고, 시민의 언어로 표현된 문화 확산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으로, 지난 5월 가정의 달 글귀 모집 이후 2 번째이다.

광양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구글폼(<https://forms.gle/K677apuxGBuY4NMAI>)을 통해 시민 글귀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 및 법에 저촉되는 글, 작품 전체 또는 일부가 이미 유포된 글, 광고·상업성 글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선작은 현수막으로 제작해 예술창고 미디어 A동 외벽(도로 방향)에 게시된다.

보성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취약계층 지역난방·LPG·연탄 구입 지원

보성군은 오는 12월 30일까지 '2022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2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인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로 고지서를 통한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2022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최소 103500원(1인)부터 209500원(4인 이상)까지 지원된

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2021년 지원 대상자 증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 올해 자동 신청되며, 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신규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포털(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보성군 관계자는 "2021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총 1,100가구에 약 1억 3천여만 원을 지원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며 "올해도 지원 대상 가구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장국도 기자

해남 '땅끝이·희망이'

이모티콘으로 만나세요

해남군 마스크트 '땅끝이·희망이'가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 재탄생했다.

해남군은 군 SNS 캐릭터로 제작된 '물랑물랑 땅끝희망이' 이모티콘을 선착순 2만 5000명에게 무료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물랑물랑 땅끝희망이'는 해남군 마스크트인 땅끝이와 희망이를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로 캐릭터화 한 SNS 이미지로, 다양한 상황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16종으로 제작됐다.

이모티콘을 무료로 받으려면 카카오톡 채널 '해남에 반했남'을 추가하면 된다. 선착순 2만 5000명에게 6월 10일 오후 2시부터 이모티콘을 제공한다. 사용기간은 7월 9일까지 30일간이다.

해남군은 땅끝이, 희망이 마스크트를 캐릭터화해 SNS 등 다양한 분야에 적극 활용해 군 이미지를 높이고 있다.

이번 SNS 이모티콘 제작 외에도 신청사 현관에는 대형 공기청정기로 제작된 '희망이'가 군청 방문객을 맞고 있다. **/해남=김동주 기자**

강진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원 오는 10일까지 모집

강진군보건소는 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위한 조사원을 6월 10일까지 4명을 모집한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국가승인 통계 조사이다.

조사원은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사 표본가구로 선정된 가정을 방문해 노트북을 활용해 1:1 면접조사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다.

모집 자격요건은 20세 이상 성인이 없는 경우 올해 자동 신청되며, 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신규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포털(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보성군 관계자는 "2021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총 1,100가구에 약 1억 3천여만 원을 지원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며 "올해도 지원 대상 가구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장국도 기자